

원희룡 장관, 「한-인니 경제 협력 포럼」 참석을 통한 한-인니 동반성장 청사진 공유

- 원팀코리아 인니 파견 후, MOU 체결 등 첫 성과 도출 -
- 신수도, 메트로, 플랜트 등 협력 분야 후속조치 강화 -

□ 원팀코리아 인니 파견(3.15~3.19) 이후,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24일(금) 앰버서더 서울 풀만호텔에서 개최하는 한-인니 경제 협력 포럼*에 참석하였다고 밝혔다.

* (주최) 주한 인니 대사관, 헤럴드미디어 (후원) 국토교통부, 기획재정부
(참석자) 국토교통부 장관, 기획재정부 1차관, 주한 인니 대사, 루훗 해양투자조정부 장관, 부디 보건부 장관 등

□ 원팀코리아에 참여한 일원 중 하나인 대영채비는 충전기 공급 및 설치 확대를 위해, 한-인니 경제 협력 포럼에서 인니 에너지 기업인 Indika와 전기차 충전 관련 상호 협력 MOU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하였다.

○ 원희룡 장관은 “대영채비는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초급속·급속충전소 인프라 발전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으로,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인니 내에서 생산되는 최신행 전기차 생산·보급과 함께 충전 인프라 확대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” 고 밝혔다.

□ 지난 3월 16일(목) 원팀코리아는 자카르타에 방문하여, 인니 공공사업 주택부·신수도청과 한-인니 뉴시티 협력포럼을 공동 개최하였고, MOU 체결식, 원팀코리아 로드쇼, 비즈니스 미팅 등의 행사를 진행하며, 해외 건설 뿐만 아니라 대영채비 등 전기차 인프라 기업을 포함하여 스마트 시티, 모빌리티, 문화 등 다양한 분야 기업들이 인니측과 네트워킹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.

- 원희룡 장관은 “뉴시티 협력 포럼과 경제 협력 포럼 등 인니와의 협력의 장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지속적으로 이어져 나가길 바라며, 인니는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며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가족” 임을 강조하였다.

-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신수도, 메트로, 플랜트 등과 스마트시티, 모빌리티까지 한-인니 부처간 논의했던 내용들과 후속조치를 잘 챙겨 오늘 대영채비와 같이 원팀코리아 참여기업들의 실질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2023. 3. 24.

국토교통부 대변인